논어 11편 선진 18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回也其庶乎，屢空。賜不受命，而貨殖焉；億則屢中。」

독음 · 자왈 회야기서호 루공 사불수명 이화식언 억즉루중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회는 도에 가까웠지만 늘 가난했고, 자공은 주어진 가난에 머물지 않고 재산을 늘리며 예측을 자주 맞혔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回 돌 회 회 / 也 어조사 야

其 그 기 / 庶 여러 서 서 / 乎 어조사 호 / 屢 창 루 루

空 빌 공 공 / 賜 줄 사 사 / 不 아닐 불 / 受 이을 수 수

命 목숨 명 명 / 而 말이을 이 / 貨 재화 화 화 / 殖 날 식 식

焉 어찌 언 언 / 億 억 억 억 / 則 곧 즉 / 中 가운데 중 중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